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2호[2011. 12] : 101~126

스페인어 명사의 가산성에 따른 관사 습득 분석 및 학습 전략 연구

양 승 관*
(Yang, Seung-Kwan)

<Abstract>

La Adquisición y el Aprendizaje de los Artículos Según la Contabilidad de los Nombres del Español

El problema de la adquisición de los artículos ha sido siempre problemático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sobre todo, en la de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que no tienen artículos en su lengua materna. Así pues,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primero, observar algunos errores en el uso de artículos relacionados con la contabilidad de los nombres del español y, luego, porponer una estrategia educativa más adecuada. A fin de realizar nuestro experimento, se han seleccionado los 80 alumnos coreanos de segundo curso del departamento de español. Ellos han tomado la prueba que contiene las 30 oraciones españolas extraídas de varios libros de texto. El análisis del resultado muestra que el nivel de la adquisición de los artículos es bajo, sobre todo, en el uso de los artículos relacionados con la recategorización de la contabilidad de los nombres. Es decir, encontramos que los estudiantes coreanos tienen grandes dificultades para emplear el artículo en los nombres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skygap@hanmail.net

que pueden ser contables o no contables dependiendo de su significado en el contexo, así como en los nombres que permiten recategorización entre los nombres contables y los no contables. Para que se superen las dificultades en la adquisición de los artículos del español por parte de los alumnos coreanos, proponemos que hay que tener en cuenta que la interpretación contable o no contable de los nombres en español depende de los contextos discursivos.

[Key Words: La Contabilidad de los Nombres / La Recategorización de la Contabilidad / La Adquisición y el Aprendizaje de los Artículos]
[주제어: 명사의 가산성 / 가산성의 재범주화 / 관사의 습득과 학습]

Ⅰ. 서 론

관사는 의사소통 및 담화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문법 항목이며, 표면상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의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어 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이 관사체계를 정확히 익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일예로 학습자들은 문장이나 담화 텍스트에서 명사와 함께 어떤 유형의 관사가

1) Master(1986)는 제 2외국어 습득에서 관사의 적절한 선택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까지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관사가 모국어에 없는 언어 체계를 가진 언어권의 학습자들에게 관사라는 형태소를 습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다. cf. Master(1986, 1987), Brender(2002), Moore(2004).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특정/불특정, 가산/불가산, 단수/복수의 의미 구분이 명시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분을 잘 나타내 주는 관사 기능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주목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관사 습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즉, 명사의 가산성 및 그와 관련된 관사 용법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 범주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교육에서 관사는 문장 전체의 주요 의미에 있어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기능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간과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스페인어 관사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중 하나가 관사의 사용이 해당 명사의 수, 즉 가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실제 스페인어 문장에서도 이를 중요시하지 않는데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관사는 대개 예외적이고 특수한 용법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미적 특성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은 먼저 완벽한 스페인어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서 사용된 관사의 특징적 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관사를 잘못 사용하여 틀린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주의를 주기에는 부적당한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어 관사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관사를 잘못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스페인어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며, 기존의 나열식 예외적인 용법 위주의 교육으로는 관사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페인어 작문이나 독해의 경우에도 관사로 유발되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문법 교재에 있는 관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그 선택과 의미 파악에 주저할 수 밖에 없고 많은 오류를 범하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산성과 관련된 관사 사용의 분포와 오류 유

형을 분석하여 관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교육적 학습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는 어떤 용법의 관사 사용에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관사 사용의 오류에 일련의 질서가 있다면 그 오류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효과적인 관사 교육 학습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스페인어 명사의 가산성과 관사

1. 관사와 명사의 관계

스페인어에서 명사 그 자체는 개념이나 범주를 의미하는 비실제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 실제적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의 경우 관사나 다른 한정사와 함께 사용되어 현실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관사는 이러한 명사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기능 즉, 명사의 한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명사는 담론이나 텍스트에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즉 관사를 갖추어야 한다. 관사 없는 명사는 명사의 개념이나 본질을 언급하고, 관사가 사용된 명사는 명사의 의미를 실제화 시켜 담화내의 다른 요소들과 명사를 연결시켜 지시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2)]

---

2) 명사의 실제화에 대해서는 Alonso(1933), Fernández Ramírez(1951), Moliner(1979), Marcos Marín(1985), Matte Bon(1992), Bosque(1996), Martínez Álvarez(1996) 등을 참조하시오.

2. 명사의 가산성과 관사의 사용

명사는 문맥에 따라서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 둘 중 어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사의 가산성은 명사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맥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가산명사인가 불가산명사인가에 따라 관사의 사용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1) a. *Queremos libro.
b. Queremos {un libro. / (unos) libros. / el libro. / los libros.}

(2) a. *Bebí {una leche. / dos leches.}
b. Bebí leche.

(1a-b)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셀 수 있는 명사인 libro는 단수일 경우 그 앞에 관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정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에, (2a-b)에 사용된 lech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들은 그 앞에 부정관사나 수사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복수형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예문 (1-2)의 비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산명사는 한정사 없이 단수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복수형으로 사용되며, 부정관사 및 수사와 함께 사용된다. 반면에, 불가산명사는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없고 부정관사 및 수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명사의 가산성은 부정관사의 사용이나 복수형의 사용 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비문법적인 스페인어 문장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스페인어 관사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명사에 관한 것이며, 관사 그 자체

를 배우기보다는 사용되는 명사와 관련지어서 함께 학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 사항은 해당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의 구분, 즉 명사의 가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산성의 전환

앞에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관사 사용 규칙에 대해 간략히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상황과 문맥에 따라 이 규칙을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3] 말하자면, 명사의 가산성과 관사의 연구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스페인어 명사들의 가산성이 재범주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사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4] 가산성이 재범주화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

cerdo, ternera, pollo 등의 명사들은 동물 그 자체를 나타낼 때는 개별화된 가산적 실체를 의미하므로 가산명사로 사용되는 반면, 동물의 고기 요리를 나타낼 때는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되어 사용된다.

(3) a. Se compra una ternera.
b. ¿Quieres un cerdo?

3) 명사의 가산성 구분이 쉽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승관(2011)을 참조하시오.
4) 영어 명사에서의 가산성의 재범주화에 대해서는 한학성(1996)을 참조하시오.

(4) a. Comí ternera.
b. Prefiere cerdo.
(cf. Bosque(1999: 10-11))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된 경우 단수형에서는 부정관사나 수사를 사용할 수 있고 복수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정관사나 수사 그리고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4a)와 (4b)에서 ternera와 cerdo는 물질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소고기 음식' 그리고 '돼지고기 음식'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5) a. Compré cebollas.
b. Sabe a cebolla.

(5a)에서 cebollas는 셀 수 있는 개체 덩어리로 가산명사로 사용된 것인 반면, (5b)의 cebolla는 음식재료나 물질로서 불가산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2) 불가산명사에서 가산명사로 재범주화

jamón, queso, pan, pescado 등은 불가산명사지만 가산명사로 재범주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

(6) 불가산명사
a. No quiero más jamón.
b. Huele a jamón.

(7) 가산명사로 재범주화
a. Le regalaron un/el jamón.

b. Hay tres jamones sobre la mesa.
(cf. Bosque(1999: 10-11))

이러한 유형의 명사들은 대개 의미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재료를 의미할 때는 셀 수 없는 물질명사로 사용되고, 각각의 온전한 개체를 의미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또한, 스페인어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떤 특정한 의미 관계를 보이며 셀 수 있는 명사로 재범주화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una unidad de, un tipo de, una clase de 등처럼 예측 가능한 의미 관계를 보이며 이루어진다.

(8) 불가산명사
a. Quiero café.
b. Preferimos té.

(9) 가산명사로 재범주화
a. Quiero un café.
b. Preferimos un té.

예로, café는 물질명사로 사용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수사를 사용하거나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그러나 una taza de café의 의미로 쓰일 때는 수사 및 복수형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도 물질명사가 종류(clase)나 유형(tipo)의 뜻을 나타낼 때 셀 수 있는 명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10) a. Los vinos de Italia
b. Los tabacos de Canarios
c. Los científicos están comparando dos aguas. (= dos tipos

de agua)

3) 기타 가산성과 관사

어떤 명사들은 동일한 명사가 그것이 지칭하는 의미에 따라 가산명사로도 사용되고 불가산명사로도 쓰이는데 가산성과 관련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11) a. Hay mucho hilo en este carrete.
b. Saqué dos hilos de mi suéter.

(12) a. No tengo mucho pelo.
b. José tiene muchos pelos en el cuerpo.
(cf. Areta(2001: 96))

이러한 명사들은 대개 의미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온전한 개체를 의미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물질명사로 사용된다.

또한 스페인어 자체에서 의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가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명사들이 있다. 즉, 의미는 같지만 대상을 할당하는 가산명사 그리고 물질이나 재료를 할당하는 물질명사가 별개의 어휘로 존재한다.

(13) a. Necesito {*más ropas. / más trajes.}
b. Se pone {*una ropa. / un traje azul.}

Ⅲ. 설문 연구

1. 설문 대상

관사 용법은 통사 영역뿐만 아니라 의미와 기능 영역까지 연계되어 있어, 제 2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경우, 초급 정도의 수준은 이수해야 학습이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 대상으로 참여한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자 2학년 스페인어 전공 학생들로 2011년 1학기에 스페인어 중급 문법을 수강한 학생 80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관사 일반에 관해 개략적으로 학습을 받은 학생들임을 밝힌다. 따라서 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관사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 대상자 중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학생과 응답하지 않은 문제가 전체의 30%를 넘어서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설문 도구 및 절차

설문 도구로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에서 회피 전략의 사용과 채점에 있어서 불명료함, 통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작문 형식의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측정하기를 원하는 부분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지에는 관사가 들어갈 자리에 빈 칸을 남겨두어 정관사와 부정관사 중 하나를 쓰도록 하였으며 관사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문제 유형은 가산성과 관련하여 30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가산명사, 가산명사의 불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

로의 재범주화, 유사한 의미지만 가산성이 다른 명사군.

명사의 가산성에 따른 관사 문항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음 빈칸에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알맞게 넣으시오. 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기하시오.

1. Hay ____ pluma y dos lápices en la mesa.
2. ¿Qué es esto? Es ____ manzana.
3. Tienes ____ huevo en el plato.
4. Compré ____ pollo en la granja.
5. Ellos venden ____ mueble de madera antigua.
6. Sabe a ____ cebolla.
7. Esta tarta está hecha con ____ manzana.
8. Tienes ____ huevo en la corbata.
9. Almorzó ____ pollo.
10. Leonardo escucha ____ música.
11. Quería ____ información sobre las clases de refuerzo.
12. A mí me encantaría tomar ____ pescado.
13. No quiero más ____ jamón.
14. Está hecho con ____ piedra.
15. Ayer bebí ____ cerveza con mis amigos.
16. Había ____ pescados de muchas clases.
17. Le regalaron ____ jamón.
18. Durante el paseo encontré ____ piedra.

19. Camarero, ____ cerveza, por favor.
20. ¡Hay ____ pelo en mi café!
21. Ha cometido ____ locura imperdonable.
22. Tuvo ____ sueños espantosos.
23. ____ tabacos de Canarios
24. ____ vinos de Italia son afamados.
25. No tengo mucho dinero, sólo ____ cuantas monedas.
26. Para ir a la fiesta escogí ____ vestido blanco.
27. Suelo tomar ____ bollo para desayunar.
28. ¿Dónde puedo cambiar ____ dinero?
29. Necesito más ____ ropa.
30. Ayer comimos ____ pan.

문항 전체의 분류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4) <표 1> 관사의 가산성 기능에 따른 유형별 문항 분포

기능	유형	문항 번호	계
가산성	가산명사	1, 2, 3, 4, 5	5
	가산명사의 불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	6, 7, 8, 9	4
	불가산명사	10, 11, 12, 13, 14, 15	6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명사군	25, 26, 27, 28, 29, 30	6
계			30

본 평가는 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조사 목적의 도구임을 공지하였고, 15분 이내에 문항을 풀도록 시간을 제한하였다. 시험 종료 5분 전에 남

은 시간을 고지함으로써 설문 대상들이 시간 배분을 잘못함으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Ⅳ. 설문지 분석 및 학습 전략

(15) <표 2> 가산성에 따른 정답률

기능	관사 일반 문항	가산성과 관련된 문항	평균
백분율	72 %	39 %	55.5 %

전체 학생들에게서 가산성과 관련된 관사 문항의 정답률이 39%로 일반적인 관사 사용 문항의 정답률 72%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5] 가산성과 관련된 관사의 정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학생들의 명사의 가산성에 대한 이해 부족, 상황을 무시한 채 관사를 규칙으로만 적용하려는 학생들의 태도, 관사 항목 자체의 어려움과 모국어의 전이[6]에 의한 장애 현상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가산성의 오류 분석

1) 가산명사

가산명사에서 관사 사용에 대한 응답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5) <표 2>에서 관사 일반 문항의 정답률은 양승관(2011)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6) 전이(transfer)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언어 구조가 목표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Fries(1952)가 처음 주장하였다. 전이에는 모국어와 목표어가 언어 구조상 유사함으로써 목표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전이 현상과 모국어와 목표어가 전혀 다름으로써 학습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전이 현상이 있다.

(16)

문항 번호	응답자수/ 응답률 %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1	**80**	4	16
2	**63**	16	21
3	**70**	12	18
4	**60**	25	15
5	**18**	21	61
총계	**58.2**	15.6	26.2
정답률	**58.2**		

가산명사의 정답률은 58.2%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4) 문항의 pluma, manzana, huevo, pollo를 가산명사로 인식한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이 68.2%에 이르러 가산명사에 대한 부정관사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 5번의 경우 정답인 부정관사로 응답한 비율이 1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무관사로 답한 응답률이 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선행 지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영어 단어 furniture를 불가산명사로 기억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단어 mueble를 역시 불가산명사로 인식하여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항을 통해 특정 명사의 가산성은 관사가 있는 언어들, 즉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어떤 특정한 명사가 가산 혹은 불가산이라는 성질을 결정짓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기 때문에 가산

7) 또 다른 예로, 영어 advice는 불가산명사로 사용되는 반면, 그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consejo는 가산명사로 사용된다.

(i) a. Let me give you a bit of advice if you want to buy such an old house.
b. Déjame darte algunos consejos si piensas comprar una casa tan antigua.

성과 관련하여 특정적 양태를 보이는 단어들의 경우 교수·학습 시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가산명사의 불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

가산명사가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 되었을 때 학생들의 관사 사용의 응답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7)

문항 번호	응답자수/ 응답률 %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6	64	21	**15**
7	60	15	**25**
8	64	16	**20**
9	62	17	**21**
총계	62.5	17.2	**20.2**
정답률	**20.2**		

문항 (6-9)에서 가산명사가 적절한 상황이 주어져 개체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물질명사로 재범주화될 때 부정관사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20.2%만이 정답인 무관사로 응답하였다. 가산명사의 형태의 파괴 또는 물질이나 재료를 나타내어 가산성을 상실한 예가 되는 문항들이다. 이러한 문항들이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cebolla, manzana, huevo, pollo 등을 고정적인 가산명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가산명사가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된 경우 정답인 무관사 응답률이 평균 20.2%로 다른 유형의 무관사 정답률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부정관사 응답률이 무관사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산성] 자질을 가진 명사가 형태의 파괴 등으로 그 자질의 전체가 되는 단위를 상실했을 때에도 여전히 가산명사로 인식함으로써 관사 사용의 오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불가산명사

(18)

문항 번호	응답자수/ 응답률 %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10	40	45	**15**
11	30	55	**15**
12	30	53	**17**
13	35	30	**35**
14	35	35	**30**
15	22	40	**38**
총계	32	43	**25**
정답률	**25**		

불가산명사의 정답률은 평균 25%로 가산명사의 불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된 경우에 대한 정답률 20.2% 보다 높지만, 가산명사의 정답률 58.2% 보다 월등하게 낮아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가산명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 명사의 가산성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페인어에서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하는데 있어 어휘적 분류법이 관사의 정확한 사용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8] 또한 동사

의 보어인 경우 불가산명사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명사의 수와 관련된 관사 습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문항 11번의 경우 información에 관사를 사용한 것은 한국어식 어법으로 생각하여 셀 수 있는 명사로 착각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número)가 명사 활용의 필수적 문법 범주인 동시에 관사가 존재하는 스페인어의 경우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대립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복수성을 드러내 줌으로써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할 수 없다. 말하자면, 스페인어에서 복수표지와의 양립 가능성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이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페인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한국어에 준하여 구분해서는 안되고, 그에 따라 관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본 문항들에서 학습자들은 정관사나 부정관사로 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스페인어 명사 앞에는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

(19)

문항 번호	응답자수/ 응답률 %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16	**55**	15	30
17	**35**	30	35
18	**40**	35	25

8) 제 2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어휘적 구분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그러한 구분이 언어마다 어느 정도 자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각 언어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19	**45**	35	20
20	**55**	25	20
21	**15**	25	60
22	**53**	20	27
계	**42.5**	26.4	31
정답률	**42.5**		
23	20	**63**	15
24	23	**67**	12
계	21.5	**65**	13.5
정답률	**65**		
전체 정답률	**53.7**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로의 재범주화된 문항 (16-22)의 경우 부정관사의 정답률이 42.5%로 나타났고, 문항 (23-24)의 경우 정관사의 정답률이 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된 경우의 정답률 20.2%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재범주화되기 이전의 불가산명사의 정답률 25%보다 크게 앞선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들이 불가산명사에서 재범주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가산명사에 대한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사용을 불가산명사에 대한 무관사 사용보다 훨씬 용이하게 습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문항 (21)의 경우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정답인 부정관사를 사용한 응답률 15%보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률이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추상명사는 구체명사와 달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9)]

9) locura, satisfacción, alegría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추상명사로 분류된 명사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수나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들로 대개 불가산명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부정관사나 복수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acto de ..."의 의미로 가산명사로서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

5)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명사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가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명사들에 대한 관사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

문항 번호	응답자수/ 응답률 %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25	**45**	10	45
26	**60**	15	25
27	**65**	27	8
계	**57.5**	20.5	22
정답률	**57.5**		
28	50	30	**20**
29	55	25	**20**
30	52	29	**19**
계	52	28	**19.6**
정답률	**19.6**		
전체 정답률	**38.5**		

문항 (25-27)에서 가산명사인 moneda, vestido, bollo가 사용된 문장으로 정답률이 57.5%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항 (28-30)에서는 부정관사나 정관사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dinero, ropa, pan을 가산명사로 잘

(i) a. Nos dio mucha satisfacción tu triunfo. (불가산 명사)
b. Es un chico que nos ha dado muchas satisfacciones.
(= muchos actos de satisfacción) (가산 명사)
(ii) a. Me dio mucha alegría verte. (불가산 명사)
b. Ese niño nos ha traído tantas alegrías. (= momentos o actos felices) (가산 명사)

못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항 (25-27)의 명사들과 의미가 동일해서 관사의 사용 역시 동일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들이 두 유형의 어휘의 가산성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가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명사와 관련된 관사 습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관사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어에서 대상을 할당하는 명사 그리고 물질이나 재료를 할당하는 명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6) 가산성과 관련된 관사 습득의 특징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가산성과 관련된 관사 문항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관사 습득의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가산명사에 대한 부정관사의 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로 전환되어 사용된 문항들의 경우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였고, 따라서 가장 습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가산명사를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될 수 있음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산명사가 가진 [+가산성] 자질이 형태의 파괴 등으로 인해 개체로서의 단위를 상실하였는데도 가산명사로 인식하여 관사를 사용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가산명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가산명사에 비해 불가산명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가산명사에서 관사 사용의 기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명사의 수와 관련된 관사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불가산명사에서 가산명사로 전환되어

사용된 문항들의 경우 평균 정답률이 5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오류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로 전환된 문항의 정답률 20.2%, 그리고 불가산명사의 정답률 25%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불가산명사에서 전환된 경우라 할지라도 가산명사에 대한 관사 사용을 훨씬 용이하게 습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가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명사들의 문항에서 관사 습득의 오류가 다소 많았다. 스페인어에서 대상을 할당하는 명사 그리고 물질이나 재료를 할당하는 명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학습 및 관사 사용에 대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산성과 관련된 문항들의 정답률이 38.8%로 일반적인 관사 사용 문항들의 정답률 72%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관사의 정답률은 가산명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로 재범주화된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산성의 전환이 관사 습득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관사를 꼭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스페인어 명사 앞에 관사를 항상 사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언어 습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관사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가산명사보다 불가산명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명사 앞 위치를 무관사로 비워두기 보다는 일단 정관사로 채워 넣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학습 전략

스페인어 명사의 가산성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산성에 따른 관사 사용의 기본적인 규칙만으로도 알 수 있는 문항들에서 비교적 많

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어 관사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명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사 그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함께 사용되는 명사와 관련지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사는 해당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셀 수 있는 단수 명사인 경우 그 앞에 관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정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없고 또한 부정관사나 수사를 사용할 수 없다.

명사는 명사 자체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그 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맥적 환경에 따라서도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둘 중 어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관사 역시 이에 준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어 명사들의 가산성이 문맥 환경에 따라 전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사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가산명사이나 스페인어에서 불가산명사로 쓰이는 명사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어에서는 관사가 명사의 종류 및 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스페인어처럼 엄격하지 않으므로 인해 생기는 오류라 할 수 있다. 스페인어와 같은 외국어 학습자들은 목표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또는 선행 학습한 언어, 예로, 영어)에 일대일 대응시키려는 경향 및 그에 준하여 다른 예들에까지 과잉 일반화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어와 우리말 사용의 차이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명사의 가산성과 한정성에 대해서 스페인어는 비교적 엄격하나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차이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어에는 명사의 자질을 가산과 불가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한정성을 나

타내는 자질이 있기는 하지만, 지시 대상을 한정하여 표현할 때 스페인어의 '정관사'에 해당하는 '그'가 흔히 생략되어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관사를 선택하는데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모국어로 인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상명사는 모두 불가산명사로 생각하여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통명사는 가산명사이고 추상명사는 불가산명사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그 명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맥적 환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학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추상명사가 가산성을 내포하는 명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명사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문맥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만 암기했기 때문이다. 관사의 의미와 기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도록 담화와 상황 맥락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는 화자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문장의 기계적 암기 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문맥이나 대화문 위주의 자료로 교수·학습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법 범주인 스페인어 관사를 습득하는 정도 그리고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관사 사용상의 가산성으로 구분하여 오류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관사 습득 수준이 대체로 낮았다. 특히, 명사의 가산성이 전환되는 경우에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

의 관사에 대한 관심 부족, 관사 항목 자체의 어려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간의 구분의 어려움, 상황과 문맥을 무시한 채 관사를 규칙으로만 적용하려는 태도, 가산성 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 영어의 간섭 현상과 모국어인 한국어의 전이에 의한 장애 현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스페인어 관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즉,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할 줄 알고 그에 따른 관사의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명사의 가산성이 불변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명사의 가산성 구분에 있어 보통명사는 가산명사이고, 물질명사나 추상명사는 불가산명사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명사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가산성이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황과 문맥에 따라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로 또는 그 역으로 재범주화가 일어날 수 있다. 스페인어 명사들의 가산성에 따른 어휘적 분류가 관사 용법에 중요한 기초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화자가 명사 분류의 개념을 의미와 문맥상의 용법에 따라 재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관사의 사용도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승관(2011), 「가산명사인가 불가산명사인가?」, 『스페인어문학』, 60.
한학성(1996), 『영어 관사의 문법』, 서울: 태학사.
Alonso, A.(1933), “Estilística y gramática del artículo en español”, en

Estudios lingüísticos, Temas españoles(1974), Madrid: Gredos, pp. 151-194.

Areta, J.M.(2001), "Nombres contables e incontables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Estudios Hispánicos*, 20, pp.89-104.

Bosque, I.(1996), "Por qué determinados sustantivos no son sustantivos determinados. Repaso y Balance", en I. Bosque (ed.), *El sustantivo sin determinación. La ausencia de determinante en la lengua española*, Madrid: Visor Libros, pp.13-119.

_____(1999), "El nombre común", en I. Bosque y V. Demonte (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1, Madrid: Espasa Calpe, pp.3-75.

Bosque, I. y V. Demonte (Eds.)(1999),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Brender, A.(2002),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Articles to (-ART) ESL Students in Writing Classes Using Consciousness-Raising Methods*, Dissertation for Doctor of Education, Temple University.

Fernández Ramírez, S.(1951), *Gramática Española*, Madrid, Revista de Occidente, 2 ed., Vol.3.2: *El pronombre*, volumen preparado por J. Polo, Madrid, Arcos Libros.

Fries, C.C.(1952),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Marcos Marín, F.(1985), Curso de gramática española, Madrid: Cincel.

Martínez Álvarez, J.(1996), "Nombres discontinuos y artículos", BRAE LXXVI, pp.119-128.

Master, P.A.(1986), *Teaching the English Article to Foreign Technical Writing*

Students, The Technical Writing Teacher.

_____(1987), *A Cross-linguistic Interlanguage Analysis of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Article System*. Ph. D. Dissertation. UCLA.

Matte Bon, F.(1992), *Gramática comunicativa del español 1*, Madrid: Difusión.

Moliner, M.(1979), *Diccionario del uso del español*, Madrid: Gredos.

Moore, J.M(2004), Articles and Proper Names in L2 English,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Real Acacemia Española(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논문투고일자: 2011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21일